

大巡思想의 神觀攷

林 泳 暢 *

目 次

緒 言

제一편 神明론(神明論)

I 서설(序說)

1. 神明(神)의 어의(語義)
2. 神明(神)관 정립의 의의
(定立意義)

II 神觀의 발달

1. 신의 원시적 觀念
(原始的 觀念)
2. 애니미즘 (Animism)
3. 토테미즘 (Totemism)
4. 범신론(汎神論)
5. 다신론(多神論)
6. 자기 계시의 신(自己啓示神)
7. 창조신, 조화신
(創造神, 造化神)
8. 유일신(唯一神)
9. 최고신, 주재신
(最高神, 主宰神)
10. 인즉신(인내천)의 사상
(人卽天(人乃天))

III. 동서 神明觀의 비교(比較)

1. 동양의 神觀(神觀)

- (1) 중국(中國)의 神觀
- (2) 인도(印度)의 神觀
- (3) 일본(日本)의 神觀
- (4) 한국(韓國)의 神觀

2. 서양의 神觀

- (1) 바빌로니아(Babilonia)의 神觀
- (2) 히브리인(Hebrai)의 神觀
- (3) 유대교(猶太教)의 神觀
- (4) 기독교(基督教)의 神觀
- (5) 회교(回教)의 神觀
- (6) 희랍(Greece)의 神觀
- (7) 로마(ROMA)의 神觀

3. 神明사상과 영혼사상 (神明·靈魂思想)

IV. 대순사상의 神明觀(神明觀)

1. 神明의 개념(概念)
2. 神明의 유형(類型)
3. 神明의 주처(住處)
4. 神明의 직능(職能)

V. 結語(結語)

* 전해사 교수

緒 言

종교 신앙가의 종교를 보는 눈과 종교 연구가의 그것은 상이하다. 학문적으로 유별하면 전자의 태도는 신학(神學)이라고 번역한 dogma적인 giography며 후자는 인문과학으로서의 종교학(宗教哲學, 宗教歷史學 등을 포함한)적인 범주를 넘지 못한다. 논리학적으로 말하면 신앙가는 교의에 입각한 연역적(演繹的) 사변(思辨)으로서라고 할 것이고 연구가(비평가를 포함하여)의 태도는 신앙인의 교의를 귀납적(歸納的)으로 종합하여 체계화한 비판적 고찰을 가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여기에 밝힐 것은 필자는 대순사상을 연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객관적 관점으로 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둔다.

그러나 본 학술원이 요구하는 바는 일반 종교학적인 안목이 아닌 신학적 또는 종학적 견지에서 보는 그것이다. 더구나 신명론, 상제론 같은 교의의 가장 근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은 연구자로서는 실로 배한(背汗)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필자는 모든 민족종교에 대한 애정이 민족에 대한 애정 못지 않으며 도조(道祖) 증산과 도주(道主) 조정산의 양위(兩位) 상제(上帝)를 봉대(奉戴)하는 교의에 대한 흔쾌감을 느끼기도 하는 사람의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일문(一文)은 대순사상이 지니고 있는 종지(宗旨)의 종학(宗學)을 토대로 하여 비판적이기 보다는 외려 체계화한 재구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다만 두려운 것은 대순사상의 본질적 대의(大義)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니 대방(大方)제현의 질정을 바랄 뿐이다.

제一篇 신명론

I. 서설

1. 신명(神)의 어의

신명(神明)이란 말과 신(神)이란 말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다. 신명이 난다는 말과 신이 난다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듯, 천지신명(天地神明)이란 말과 천신지기(天神地祇)란 말의 뜻이 차이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제 이 신명과 신이란 말의 어의를 먼저 고찰해 본다.¹⁾

- 신 …… 하늘에 있는 신 [天神]
- …… 모든 신의 총칭 [鬼神]
- …… 현묘(玄妙)한 것을 비유하는 말
- …… 인간의 넋, 인간의 정령(精靈)
- …… 마음 [精神]
- …… 사람의 힘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부사의(不思議)한 일
- …… 존귀하여 범접할 수 없는 것 [神聖]
- …… 사람의 힘 이상인 것 [神氣]
- …… 화생(化生)하는 동사로도 쓰인다 [神變]
- …… 종교적으로 인간을 초월한 절대적 존재인 하느님[天主], 하나님 [一主]
- 신명 … 신, 하늘과 땅의 신령
- … 사람의 마음 [精神, 神明]

다음 본론에서 동서양 신의 개념을 비교 고찰하겠지만 먼저 말하자면 일반인은 물론이고 종교신앙자나 연구자의 경우에도 동양의 전통적이고 고유한 신개념과 서구적 신개념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는 것을 판별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다음 항에 있는 신의 개념에서 상세히

1) 양주동, <최신국어대사전>, 민중문화사

논의되겠지만 우선 말하자면 동양의 신은 천지만물 모두에게 신이 있다고 하는 범신론(汎神論)적인데서 출발하고 또 생자(生者)에게 있던 신이 사자(死者)가 되어서는 육체는 없어지고 혼백(魂魄)이 독립한 인격신이 된다는 관념을 갖는다. 서구(중동과 이집트 같은 곳도 한 권내에 포함하여)의 신개념도 그 출발은 동양인의 경우나 대동소이한 것이었지만 유대족의 민족신으로 등장한 야웨(Jahveh)의 출현으로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신 “유일신” 밖에 없다고 한 유대교, 기독교, 회교를 통해서 정착이 되어 가는 것은 기가 막힐 일이다.

이런 논의는 다음에 다시 논의하겠지만 여기서는 다만 동양의 신(神)을 서구어로 god로 번역하고 서양의 god를 동양에서 신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생기는 혼동이다. 서구인이 관념하는 god와 동양인이 생각하는 신은 인간계가 아닌 저승 곧 타계(他界)에 유체(幽體)로 존재하는 비현실의 존재로서 공통되게 사용하는 단어로서의 의미가 같을 뿐이지 사실은 다른 성격의 존재인 것이라는 것을 말해 둔다.

그리고 신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어휘들을 찾아보면 대개 이런 것들이 있다. 서구류로는 신, 마귀(또는 악마), 귀신, 천군, 천사, 정령, 죽은이의 영혼, 망령, 유령 등이 있고, 동양에서는 한울님(하누님, 하느님, 하나님, 한님 등으로 파생된다), 상제, 옥황, 천존, 귀신(鬼神), 용왕, 도깨비, 허깨비, 혼백, 신령(神靈) 등이 있지만 일일이 따져볼만큼의 필요도 없고 또 그런 자료도 많지 않다.

참고로 인도(불교경전을 위주로 하는) 사상에서 나오는 신종류들은 범천, 아수라, 아귀, 긴나라, 인비인 등 외에 무수히 등장하고 심지어는 인격완성체인 보살 같은 이에게도 마두(馬頭觀音)나 하는 화신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魔라고 번역한 마(mara)²⁾는 다른 지역이나 종교에서 생각하는 인격체가 아니고 수마(睡魔), 색마(色魔) 등의 용어와 같은 정신적 사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특색이다.

2) <中村元新佛教辭典>, 城信書房(日)

2. 신명관 정립의 의의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신앙대상이 인간계 이외의 존재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어떤 종교, 아니 대다수의 종교는 최고신을 신앙 경배하는데 그 가운데도 그 신을 창조신, 조화신으로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일신, 주재신으로 하여 일체 다른 신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종교는 자기들의 교조를 신의 사자로 보든지 다만 인간으로서 신격을 부여한 존재로서 미화 신앙하기도 한다.

또 일본에 있는 어떤 종교같은 것은 자기집, 조상신을 신앙대상으로 성립되어 있기도 하니 이런 것은 동양적 신관으로선 합리화한 것이지만 서구인의 신관으로는 해석되지 않을 것이다. 신의 존재를 본질적으로 부인하든지 신을 인정해도 그들도 인간과 같은, 또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보는 종교도 있다. 불교 같은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니 인격의 최고 완성자 붓다(佛陀 =buddha)가 되고 그 다음 위격이 보디 사뜨바(菩提薩陀=bodhi sattva)로서 이들은 존숭(尊崇)의 대상은 되어도 신앙의 대상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후세에 내려오면서 역사적 인물이었던 석가모니(釋迦牟尼 =sakya muni)는 아니라도 아미타(amita)신앙, 약사(藥師)신앙, 관음신앙, 미륵신앙 등으로 다양한 신앙의 대상들이 등장하게 된다.

종교가 철학적 사변과 분리해서 독립할 수 있는 것은 신앙대상의 신이나 신격인 존재가 있음으로써 완벽하게 성립될 수 있는 것인바 신앙 대상의 신이나 신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유교가 종교의 테두리에 들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역사 수천년에 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위에서 말한 불교의 경우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석가모니는 인도전래의 브라흐마신을 파괴하고 오직 인연 연기(緣起)의 법칙 속에서 우주의 생성발전의 원리를 가르치고 생사화복(生死禍福)의 법칙을 설파했지만 그런 종교철학적 사상만으로서의 배신(拜神) 사상에 젖은 사람들을 가르치기에 한계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후세인들이 생천사상(生天思想)의 피토정토설(彼土淨土說)을 표방할 수밖에 없었다.

신(神)과는 다른 유형의 여래(붓다의 법신(法身)), 보살, 나한 등의 신격화, 신격시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포교 전도의 방

편에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오늘 한국의 유교가 종교단체로 활동하려고 하는데 그 신앙의 주신(主神)과 기복양재(祈福禳災)의 대상신을 어떻게 설정(設定)할 것인가가 관심사가 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많은 국민이 그 연원을 따져 올라가면 거의 다 유가(儒家)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런 허다한 논의는 생략하고 다만 대순진리회가 신앙대상의 본존으로 하고 있는 주신(主神)이 구천상제(九天上帝)와 옥황상제(玉皇上帝) 두분의 상제 “양위상제”라고 하고 또 전경(典經)에 등장하는 많은 신명이 있어 서구적 종교교의에 젖은 사람들을 당혹(當惑)하게 하고 있는데 이 신명관의 이해와 정립없이 대순사상의 정곡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을 감안하여 본고를 집필한다.

때문에 대순사상의 이해에는 무엇보다도 그 신앙대상인 양위상제에게 대한 이해와 또 천지인 삼계³⁾에 인간 만큼이나 있는 수많은 대다수의 신명을 이해하지 않고는 안되는 필수, 필연의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天·地·人 三界 : 과거에는 過去, 現在, 未來의 뜻이었으나 불교에서는 欲界, 色界, 無色界를 말하는데 甌山이 새로 삼?(天地人)을 三界로 표현하였다. 북당암之吉 詳세海和大辭典

II. 신관념의 발달

그러면 이제 세계의 종교에서 보다 그 이전으로 올라가서 모든 종족들 사이에서 신 곧 신명에 대한 사상이 어떤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그 개념이 어떤 형태로 발달했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神의 원시적 관념

생물학적으로 인류는 유인원(類人猿)과에 속하는 호모(Homo)라는 영장류(靈長類)의 하나다. 그것이 예지(叡智)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를 호모 엘렉투스(Homo electus)라 하고 예지인을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그것이 오늘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사피엔스로까지 발달해 있는 것은 인류의 영광인 동시에 특권이라 할만하다. 무엇보다도 예지인으로서의 영광은 상상 속에서 신이라는 존재의 독특한 인식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하늘에 태양이 빛나고 달과 별이 빛나고 명멸하는 것, 운행하는 것이 신비로워지고 구름이 일고 바람이 불다가 뇌전(雷電)이 일고 비가 오는 것이 이상해졌다. 그것들이 모두 하나하나의 신령 또는 정령의 조작(造作)이라고 느껴진 것이 동서양, 산악인이나 해양인 모두에게 공통되게 인식되었다. 하늘의 신들이 있고 산의 신이 있고 물의 신, 바위신, 심지어는 부역신, 뒷간신 같은 것으로까지 미쳐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신의 관념이 숫자로서 제일 많은 것은 일본이니 그들의 사서(史書)에 팔백만신(八百萬神)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정도다. 그런데 이 미개한 시대의 신관념은 인간을 초월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외경숭배하는 반면, 또 인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세계가 있다고도 생각해서 이승의 연장이 저승이며 이승의 인간이 신명이 되어 가족끼리 생활하며 남녀가 성적으로 교합한다고도 생각했다. 그래서 인자한 부족은 자기네가 생각하는 신이 더 인자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살육을 자행하고 투쟁하는 부족은 가장 잔학하고 싸움 잘하는 것이 신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희랍과 로마의 신화 같은 것은 원시의 단편적인데서 발달한 것이지만 그 신들은 사람과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연애하고 생식하고 또 싸우고 죽이고 한 것이다. 아무튼 원시

적 신의 관념이란 그 모습과 성격이 그 신을 창출해낸 부족과 같은 것이라고 알면 틀립없다.

2. 애니미즘(Animism)

위에서 말한 원시인의 신관념의 대부분이 암석, 수목, 천체 등에, 뿐만 아니라 주위 신변에 있는 모든 것에 정령 또는 신명이 있다는 관념이 바로 애니미즘이다. 우리나라 전설 가운데는 빗자루에 여자 월경이 묻어서 도깨비로 화신해서 사람에게 가해를 했다는니 또 절구공이도 이러한 작용을 한 것을 허다하게 듣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애니미즘 사상이 발달한 상태이다. 이 애니미즘의 어원(語源)은 라틴어의 'ANIMA (生命, 靈魂)'⁴⁾인데 처음에는 단순한 철학의 용어로 쓰이다가 18세기에 와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으로서의 관념에까지 포괄된 정의가 내려진 것이다. 지금은 엄밀한 뜻으로 정령에 대한 신앙으로 국한해서 사용한다. 이 애니미즘이 종교학에서 하나의 학설로 취급되는 것은 그 속에 자연 숭배적 종교사상이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종족들은 아직도 지구의 곳곳에 있는데 그들은 모든 생물, 무생물에 있는 영혼, 정령에 대한 관념이 신명, 귀(鬼) 등으로 발전한 종교적인 학설로 형성되고 있다. 때문에 애니미즘은 저급한 관념이지만 종교의 한 형태라고 보는 것이며 또 그 대상이 신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토테미즘(Totemism)

이 토템이란 같은 씨족의 표상(表象)이 되는 동·식물 또는 자연물이다. 이 제도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종교적 민속으로서 토템폴(Totem pole=토템기둥)을 부락에 세워 놓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는데 이것이 민속종교로 발전된 예도 허다하다. 토테미즘이란 것은 인간의 한 부족과 토템이 되어 있는 것의 집단과의 상상적 사회연합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인간의 집단과 토템의 집단은 같은 성격으로 간주되어 종

4) <世界大百科辭典>, 東亞出版社

교적인 의미로 숭앙되고 연결된다.

아메리카 인디언이 몽골리언(蒙古族)의 한 지류라고 볼 때 이 토템이 아시아 대륙, 말하자면 몽골에서 건너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몽골에는 토템은 없고 우리 성황당 같은 것이 있을 뿐인데 이것도 토템의 하나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건국설화에 곰과 범이 있었다는 것을 곰과 범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들이라고 추정하는 학설도 그릇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아무튼 토템이 된 동물을 잡든지 또 먹든지 하는 것은 터부(禁忌)가 되어 있다. 그것은 신성시 되어야 하며 또 그로써 부족의 분류(토템種에 의한)와 질서유지, 통합을 가능케 하는 공효가 있다.

4. 범신론(汎神論)

애니미즘과는 다르게 발전한 신개념은 범신론적인 경향으로 도달한다. 그렇다고 신에게 대한 개념이 꼭 일정한 궤도로 차례 차례 발전해 나간다는 뜻은 아니니 지역적으로도 각각 다르게 발전하고 같은 시대에서라도 문화수준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되기 마련이다.

이 범신적 사상은 애니미즘과는 다른 경향을 지니는 것이니 애니미즘이 모든 사물과 동식물에 영신이 있다고 하는 반면, 범신론적 사상은 우주자연의 만유(萬有)가 곧 신이라는 것이니 우주와 신이 동일체가 되는 것이다.

범신론이 가장 발달한 것은 인도교의 전신 브라흐만(Brahman=婆羅門)교의 베다문학서인 우파니샤드에 보이는 범아일체(梵我一體)⁵⁾사상이다. 곧 아트만(atman=自我)이 브라흐만(梵)과 하나가 되는 것을 최고 이상으로 삼으며 다른 신은 다만 중생의 하나로서 브라흐만의 일부라는 사상이 여기서 시작된다. 그것이 석가모니에게서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든지 또 있다고 해도 권위를 부인하는 태도로 발전하게 된다.

5) 한두교 경전, 우파니샤드

5. 다신론(多神論)

범신론과는 다르게 세계의 많은 종족과 그 종교 가운데는 다신론적인 교의를 지닌 것이 많이 있다. 우리 나라만 해도 단군설화에 풍사(風師), 우백(雨伯) 등이 등장하고 주몽(朱蒙)설화에는 천제(天帝), 하백(河伯) 등이 등장한다. 위에서도 말했듯 일본의 신화 속에는 더 많은 신들이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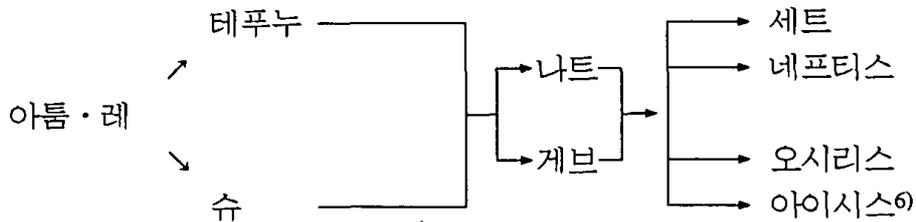
중동,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로여서 바빌로니아, 앗시리아, 이집트 등에서 보는 신들의 종류와 활동은 한결 더하다.

바빌로니아의 경우 그들의 종교서에서

- ‘오 어둠의 신이여 우리를 지키소서’
- ‘오 빛의 신이여 우리를 지키소서’
- ‘오 행락의 신이여 우리를 지키소서’
- ‘오 성전(聖殿)의 신이여 우리를 지키소서’

하는 것에서 많은 신들을 보는 바 이것은 어느 한절일 뿐이다. 그밖에 힘의 신, 투쟁의 신, 전쟁의 신, 지배의 신, 주재의 신, 야광(夜光)의 신, 결단의 신 등 한이 없다.

이집트에는 다음과 같은 아툼 신의 1단이 1부족을 이루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그것은 이집트가 멸망 전에 세계 통일을 꿈꾸던 때의 구상이다.



부모자식의 신계(神系)가 성립되면서 각자 하늘, 땅, 대기 등을 맡아 있는 임무도 있다.

히브리인의 종교 [猶太教] 에도 야웨(YAHVEH)가 유일신으로 등장하지만 그 전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다.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이전에도 많은 신이 있었지만 마즈다신의 신앙이 페르시아의 신교로 정립되었다.

그리스와 로마, 켈트족과 쉘톤족들에게도 직능을 가진 많은 신이 있었다. 한국서도 전래하는 온갖 종류의 신이 있었지만 이들을 적당한 직능으로 체계화 한 것이 대순사상이 아닌가 한다.

6. 自己啓示의 神

위에서 예시한 신이나 영, 혼, 정(精)들은 인간이 자연현상, 천체라든지 생물, 무생물의 전반 사상(事象)을 외경하든지 또 친근하는데서 오는 사상과 감응에서 소산된 것임을 넉넉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신 그 자신이 신을 접견한 특수인에게 계현, 계시하여서 출현되는 신의 존재는 종교학상으로 하나의 커다란 선을 긋고 있다.

미국의 종교사학자 조지·퍼튼 같은 이는 “세계종교의 연구는 신이 자기를 계시한 과정(Process)의 연구”라고 까지 하였다.

그것은 대개의 종교가 그 종교의 주신(主神)이나 또 교주인 개창자가 계시한 것이 그 종교의 역사가 되며 또 교의가 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동시에 교의의 신학도 그 버리(基綱)에서 생겨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한 종교의 독신자(篤信者)가 되면 그 신이나 또 교주의 계시는 절대성을 지니게 되지만 그 반대의 사람은 그 신도 그 시대 그 지역 그 부족의 인간들보다 별로 뛰어난 사상은 지니지 않았다고 보아서 무방하다.

신의 계시는 계시하는 측이 신앙대상이 되기도 하고 교단의 주인이 되기도 하지마는 계시를 받는 쪽이 교주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무튼 신의 계시, 계현의 예를 들어보면 유태교와 기독교의 주신인 야훼(또는 여호와)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한 말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느님이다”하는 것이었으니 - 청자(聽者)는 모세 뿐이었다 - 여기서부터 야훼 신의 역사(役事)와 종교의 역사(歷史)가 전개된다.

불교의 경우도 석가모니가 大覺한 후 5제자들에게 “나는 붓다가 되었다”고 선언함으로써 불교가 비롯되며 회교의 경우도 무하마드가 알라신에게 “나는 알라신이니 너를 나의 사자로 삼는다”는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천도교의 최수운, 원불교의 박종빈 등 모두가 스스로의 자각이나 천계(天啓)의 신탁(神託)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대순사상에서의 강증산, 조정산의 경우도 그들이 하늘로서의 계시와 함께 자각을 통해서 스스로의 신성(神性)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신의 자기계현 자기계시가 모든 종교 신관의 기본사상이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7. 創造・造化神

신에게 대한 관념 가운데 대별할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유태교, 기독교, 힌두교(印度敎), 회교 등에서 보이는 창조설에 입각한 창조신, 조물자(造物者)가 있었다고 믿는 것이다.

그 반면 신, 그 가운데도 최고 지상의 천지 주재격인 신이 있다고 믿기는 해도 그 주재신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우화같은 창조설을 믿지는 않는다. 다만 무극 태극 음양의 자연 이법(理法)의 조화(진화(進化)라고 해도 별로 다르지 않은)를 주재하고 그 도수를 다스린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교(西敎)의 교의인 창조신과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조화신의 교의와는 아주 판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당(唐)나라 때 문장 두심언⁷⁾이 병이 들어 상당히 중한 상태에 있었다. 친구인 송지문(宋之間)을 위시해서 동·후배가 문병을 하였는데 이 때 두심언의 말이 참 재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대답이 “조화(造化)라는 애가 나를 심히 괴롭히고 있다”고 했는데 조화를 인격화하고는 있지만 장난질치는 애들이라고 고차원적인 농을 하였다. 이것을 보아 조화옹(造化翁)이니 하는 동양의 관념은 우주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유태인의 야웨신과 같은 신과는 관념의 180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8. 유일신(唯一神)

일신교(一神敎)의 유일신이란 말만 들어도 그 신이 얼마나 권위적인 것인가

7) 두심언 杜審言 - 시성 杜甫의 조부인데 7언律詩의 창제자로서 이름이 있다.

가를 당장 느낄 수 있다.

원시적 다신론, 또는 범신론에 대한 반동으로 발생한 사상이며 또 자기네 민족신의 절대적 우월감 때문에 생겨난 사상인 것이다.

유일신 사상은 뭐니해도 유대민족의 신이 가히 대표격이 되는 것이니 구약성서에 나오는 그대로 분노의 神 야훼 곧 여호와가 그다. 그 여호와가 직접 나타나는 일은 아주 드물고, 예언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것이 시대적으로 전승되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를 통해 사랑의 신으로 변신하고 또 로고스(Logos=理 또는 言)⁸⁾의 철학적 관념으로 변모하였다.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의 신 마즈다를 유일신으로 하여 만능의 신의 권능이 있는 신으로 하고 그 교의를 칼로서 전파하려 했으나 국내종교로만 명맥을 유지할 뿐이다.

유태교와 가까운 회교의 유일신 알라는 여호와보다도 더 가혹한 신으로 나타나며 포교에 강력한 것은 조로아스터와 공통된다.

아무튼 동양인에게는 이 유일신 사상이 체질적으로 잘 맞아들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오늘에 한국서 유일신교가 흥왕(興旺)한 것은 국제정치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9. 最高神, 主宰神

유일신이 단 한 분의 신 뿐이라는 관념인데 반해 최고신 사상은 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위의 신, 그 신을 받들고 신앙하는 태도가 동양적 또 한국적인 보편된 종교사상이다.

본론의 주제가 되는 대순사상에서의 신의 관념도 일반적인 다신(多神)의 체제 위에 최고위에서 그 신들과 또 삼계의 운도(運度)를 주재하여 진행케 하는 상제가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주의 최고 주재자로서 천·지·인 삼계의 공사(公事)⁹⁾로 운도

8) 신약성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9) 公事. 公的인 처리사항. 옛날 관공서 또는 마을 사람들이 회의로서 사건을 처리할 때 쓰던 용어

도수를 조정 하기도 하고 또 그 도수를 뜯어 고치기도 하는 최고의 권능을 가졌다고 믿고 있다.

과거 각국에서 기록된 문헌이나 또 전설, 설화를 통해 많은 기인(奇人), 이인(異人)이 있어서 기사 이적을 행한 사적이 전해 오고 있지만 이들이 신이 되었다는 관념보다 인간에게 본래 신명이 깃들여 있다는 생각이 선행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제는 그 모든 인간보다 더 고위에 있는 人中人으로서 최고의 인격(人格)과 함께 신격(神格)을 지니고 있다는 관념의 이론 위에 성립이 된다.

아무튼 많은 인간의 집단사회에 그들을 다스리는 수장(首長)이 있듯이 삼계에 가득한 수많은 신들 가운데 수장이 없을 수 없다는 관념은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10. 人卽神(또는 人乃天)

신에 대한 관념은 ‘신은 죽었다’고한 서구의 철학자도 있었지만, 유물론자의 주장인 ‘신은 본래 없는 것’이라고 한 그런 무신론의 사상이 시대와 함께 팽배해졌다. 더구나 여호와를 유일의 신이라고 하는 유태사상에서조차 그 어원을 따지만 야훼란 ‘자연히 존재한 자’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에게 와서는 ‘엘로힘(Elohim)’¹⁰⁾이라는 호칭이 되었지만 이것도 뜻은 ‘자연히 있는 자’란 뜻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자연 그 자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자연, 자연히 있는자가 신으로 설정되는 반면, 드디어는 인간이 소우주며, 인간의 속에 신이 있다 [侍天主]¹¹⁾는 사상, 인간이 곧 신이다 [人乃天]¹²⁾는 사상으로 발전하여 사람이 곧 신[人卽神]이라는 관념이 사상화할 수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 [一切衆生 悉有佛性]’는 관념도 거의 동궤(同軌)에 속하는 사상이라 할 것이다.

10) 유태교,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야웨나 여호와의 호칭이 신약성서에서는 일체 사용되지 않고 엘로힘으로 불리웠다.

11) 侍天主. 동학의 초대 교주 崔水雲의 가르침

12) 人乃天. 동학의 3대 교주 孫義養의 가르침

동양사상에서는 원래 인간에게 신명과 정신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죽은 이의 위패를 신위(神位) 곧 신격으로 모셨으니 인즉신(人卽神)의 사상이 동방 전체의 기초가 되어 내려온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신’이요, 죽어서 신이 된(본래 신성이 있었으니까) 신은 ‘죽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동양 전체의 관념인 것이다.

이러한 신관념 속에서 대순진리회가 신앙대상의 주신(主神)으로 하고 있는 상제에 대해서 이론상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Ⅲ. 東西洋 神觀의 比較

위에서 동서양을 통한 신관념의 발달을 훑어 보았다. 그러나 동양, 그 가운데도 한국적 신명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계의 각 지역, 각 민족의 신명관은 어떠한지 또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 비교해서 고구(考究)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음에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먼저 알고 넘어갈 것은 신에 대한 관념도 인간의 두뇌에서 창출되는 관념이며 그 관념이 개념화하여 사상으로 고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간의 생리와 성격 그리고 사고방식 그 가운데에도 상상력과 같은 양상으로 작용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신들을 도상화(圖像化)한 것을 보면 얼굴은 누르고 의상은 한국적(중국 영향으로 수입된 신은 중국의 의상이다)이며 정(靜)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본다.

따라서 중국의 신은 중국인 같고 일본의 신은 일본인 같다. 것처럼 중동이나 서구의 신은 역시 중동사람, 서구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고 그 신이 생각하는 것이나 활동양식도 동(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신관뿐 아니고 형이상·형이하를 막론하고 사상의 본질을 동양류로 말하면 도(道)인데 그것의 근본은 하나지만 그 갈래길은 수천 수만으로 뻗어 있으니 보는 사람의 눈이 그 지역 그 시대 그 문화에 따라 다르게 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가는 길을 가면 그뿐이라고는 해도 그 길이 순탄한 길도 있고 험한 길도 있을 것이며 바른 길이 있는 반면 비뚤어진 길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각자의 장단점을 비교 연구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더구나 세계화, 국제화로 세계일가를 지향해야 할 21세기에 있어서야 더욱 그러하다.

1. 東洋의 神觀念

(1) 中國의 神觀

동양문화의 발상지인 중국의 종교사상은 인근 각 지역 민족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처음 중국의 신은 뚜렷한 종교로서의 신앙대상이 아닌 역사상의 철학적 존재로 나타난다.

먼저 하늘 [天] 곧 창천(蒼天)을 인격화하지 않은 도와 덕의 근원으로 숭앙하여 제사를 올리면서 지상의 제왕을 황제로 호칭하는 동시에 천자, 천제, 상제로 호칭하다가 드디어 하늘에도 인간사회와 같은 제왕을 설정하게 되니 그 호칭이 상제였다.

노장(老莊)사상이 신선사상의 기반 위에 유교사상, 불교, 민속신앙 등을 결합시켜 형성된 것이 도교인데 천신을 옥황(玉皇)으로 명명했다. 그런 이 후로 유교의 상제와 함께 합성이 된 옥황상제¹³⁾로 부르게 되었다.

그 후 송(宋)대에 와서 옥황도 5옥황이 되고 그 위에 원시천존(元始天尊)의 신관념이 생겼지만 그 천존도 5위가 되었다.

종교도덕이 아닌 사서(史書)를 통해서는 수신기(搜神記)와 술이기(述異記)에 반고(盤古)의 이름이 나오지만 이는 다만 '천지만물의 조상'이라고 해서 세상을 통치한 인격적 존재인 제왕으로 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황5제(三皇五帝)가 등장하지만 역시 인격적 존재일 뿐이다.

(2) 印度의 神觀

인도의 세계관은 우주의 중심에 수메르(Sumeru=須彌)산이 있는데 그 남쪽에 있는 섬부주(瞻浮洲)가 우리 사는 사바세계다. 주재신은 브라흐마(Brahma=梵天)인데 그렇다고 이 범천은 주재신은 될지언정 창조신은 아니고 그 몸체에서 만물이 생겨난다고 했다.

그밖에 크리슈나, 아리슈나, 시바, 데바 등 많은 신과 또 천왕(天王), 아슈라, 건달바, 아귀 등 많은 신과 귀(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석가모니에게서 신들이 파괴, 무시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힌두교에서는 석가를

13) <宗敎學辭典>, 東京大學出版部

성인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불교를 힌두교의 한 분파로 보고 있을 뿐이다.

(3) 日本의 神觀

일본의 신은 맨 먼저 조화(造化)의 3신¹⁴⁾이 등장한다. 아메노미나카누시노미카미(天之御中主神), 다카무스비노카미(高皇產靈神)가 그것이다.

그러나 신대(神代)라고 해서 이사나기노미코또(伊莊諾尊), 이사나미노미코또(伊莊冊尊)의 부부신에게서 장녀(長女) 오히루메무찌노미코또(大日貴靈女尊=天照大神(아마테라스오오카미))가 나서 7대까지 계속한 후에 인간의 계보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건국신화다.

그 후 그들의 신이란 곧 인간의 훌륭한 사람들이니 한국서 건너간 사람들이 사후에 신으로 받들려 백제신사(百濟神社), 고려신사, 신라신사 등 지금도 10여개소가 있는 실정이다.

그런 뜻에서 일본왕을 ‘살아있는 신 [現人神]’이라고 부르던 때도 있었지만 인즉신(人卽神)이란 사상의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4) 韓國의 神觀

우리나라는 건국 초부터 하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단군의 조선 개국 때부터 제천(祭天)사상을 지녀왔으며 또 제정일치(祭政一致)의 치정(治政)이 실시되었었다.

하늘님이란 말은 후에 한울님, 하늘님, 하느님, 하나님 등으로 호칭되어 후세에 발생한 민족종교와 무속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기독교 같은 외래 종교에서도 사용하여 관념상 차이를 일으키게 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외래종교인 기독교의 구교(舊敎)는 하느님, 신교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들의 신(god)인 여호와와 번역으로 하였지만 한국의 신관념과 서구의 god관념은 본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같지 않으니, 우리의 하늘님과 여호와의 관념차이는 체육에서의 레슬링과 탁구의 차이 만큼이나 된다고 할 것이다.

14) 造化三神...한국서 건너간 三神사상이 일본 최고(古)의 史書 ‘古事記’에 造化神으로 받들려 있다.

아무튼 한국은 세계의 종교 백화점이라고 하리만큼 내외종교가 집합되어 있어서 현재의 각종교가 섬기는 신은 허다하지만 본론에서 다음 다시 논의 되겠기로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이상은 동양 몇 나라의 신관념을 소개한 것이며 다음은 서양의 (중동지역을 포함하여) 신들을 소개하는 바 근본적으로 東·西의 신관념은 차이가 있는 것은 누누히 말한 바와 같다.

2. 西洋의 神觀念

(1) 바빌로니아(Babellonia)의 神觀

유사전시대에는 물의 여신 이쉬타르(Ishtar)¹⁵⁾가 있었으나 서기전 7세기쯤 부터 힘의 신, 투쟁의 신, 전쟁의 신, 지배, 주재, 야망, 결단, 비의 신들이 등장하여 현실과 정신의 모든 일을 맡아 있다고 믿었다.

(2) 이집트의 神觀

다신교적인 이집트의 신들을 제1장에서 소개한 것이 있지만, 레(Re)를 중심으로 하는 아홉신의 1단이 있어서 신관념의 대표격이 되지만 이집트에서는 모든 동물을 각각 신으로 보는 관념이 타민족의 토렘사상과는 다르게 독특했다.

이집트 뿐 아니라, 바빌로니아에서도 그러했지만 원시적 종교에는 별다른 신비적 교의보다 현실에 적응하고 필요한 신들이 등장하며 또한 사회윤리면이 두드러지는 것이었다. 따져보면 신이란 인간의 필요한 데 적응될 수 있는 존재란 것이 이집트인의 신관념이었으니 다음 피라미드에 조각되어 있는 시문을 보면 알 것이다.

15) 前掲, <世界宗教史>

유니스왕은 사람과 신을 잡아 먹고 살아간다.
.....

그는 빨간 신을 잡아 먹고

그는 파란 신을 마신다
.....

그는 또 모든 신의 지혜를 즐겨 마신다.¹⁶⁾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어 외국과의 교섭없이 아프리카 북부 평원에서 왕국을 이어 나가던 그들의 신관은 이처럼 독특한 것이었다.

(3) 히브리인(Hebrai)의 神觀

‘여호와와는 군인이다.’

‘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신이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절하지 말라’¹⁷⁾

이것은 구약성서에 나와 있는 야웨¹⁸⁾가 4개 종족으로 형성된 히브리 국민의 신이 되기에 앞서 먼저 숭배하던 종족들의 신이 야훼라고 한다.

그것은 여호와와가 이스라엘의 신이 되기전에 메디어나이트, 케나이트족의 신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설이다. 그 여호와와는 풍요(豊饒)의 신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주 일어나는 화산폭발로 불타는 시내산에 여호와와가 나타나고 시내반도의 풍우는 여호와와의 조작이며 적과 싸울 때 도와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와의 가호라고 믿고 있었다.

이 여호와 신을 유일신, 최고신, 창조신, 주재신으로 설정한 이스라엘 곧 히브리족은 다른 신의 출현은 불허하고 모세¹⁹⁾, 여호수아²⁰⁾ 같은 지도자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카, 에레미야, 에스겔²¹⁾ 같은 예언자에게 신탁(神託), 계시로 전수하는 교훈을 받아들여 그들의 교의로 삼게 되었다.

16) 제 5 왕조의 피라미드문에서

17) 『구약성서』, 출애굽기

18) 처음에 야웨라고 했으나 감히 부르기 황송하다고 해서 여호와로 그쳤다는 설이 있다.

19) 모세 이스라엘 민족 단일화의 시조

20) 모세의 아들, 선지자

21) 구약성서에 나오는 선지자군(群)

이 유일신의 사상은 세계 3대(三大) 일신교인 유태교, 기독교, 회교 교의의 근원이 되어 오늘도 세계인구 3분의 1이상의 심성을 지배하고 있으니 신앙세계도 일인 집권의 전제정치가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猶太敎의 神觀

여호와와 가르침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도다
내가 당신의 진리를 그리워하는 것이 어느 만큼인지 온종일 이것만 깊이 생각하오니.....²²⁾

구약성서의 일부인 소위 모세 5경(五經)²³⁾을 중심으로 선지자 네헤미아(Nehemiah) 시대에 교의가 구성되어 유태교라는 종교가 성립되는 데 그 신앙 대상의 신은 여호와 신이다.

유태교 그 자체가 히브리민족의 신관에 출발한 것임을 알 것이다.

(5) 基督教의 神觀

일신교로서 같은 연원을 가지지만 유태교와 기독교의 신관은 동일한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

유태교의 경우 여호와 신이 신앙대상인 바 그 신은 두렵고 무서우며 편벽되어 이스라엘 사람을 선민(選民)으로 하고 그들만을 위하는 괴팍한 성품의 독재적인 신이다.

그러나 예수라는 혁명적 종교가의 출현으로 유태교의 여호와 신은 엘로힘(Elohim)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사랑의 신, 세계의 신이 되고 또 로고스(理道, 法, 言) 그 자체가 신이라고 하는 범신론적 경향도 지니게 된다.

예수의 사후에 신학으로도 번역되는 도그마(dogma)는 예수를 엘로힘의 한 위(位)가 인신으로 세상에 나타난 이라고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하느님 자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엘로힘의 성격도 여호와 시대의 두려운 하느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느님으로 바뀌었다.

22) 『구약성서』, 시편

23)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만수기, 신명기

그것은 하느님에게 대한 신관의 해석이 바뀌어진 것 뿐, 그 자체는 아무리 개명을 하여도 바로 유대교에서 믿는 그 여호와 그 신이라고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여호와(엘로힘)를 아버지(聖父)로 예수를 아들(聖子)로 보아서 2위 일체라는 이론을 세웠다가 시대의 진전과 함께 성령을 인격화하여 3위1체설로 정립시켰다.

(6) 回敎의 神觀

회교(回敎)의 주신(主神)은 알라(Alahr)인 바 이 알라는 유대·기독교의 여호와와 이명동일신(異名同一神)인 것은 다 알고 있는 일이다.

유대족의 조상이 아브라함 - 이삭 - 유다로 내려가는 계보를 가지는 반면 무하마드교 곧 회교와 아라비아인들은 아브라함과 계집종 하가의 서출(庶出)인 이스마엘²⁴⁾이 사막으로 쫓겨난 다음 거기서 퍼져나간 종족이요 또 종교인 것이다.

그런데 사막에서 열사와 폭풍, 기갈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적과 싸워 가며 생을 유지하는 그들에게서 우러난 신관은 유대인의 여호와가 분노와 질투와 투쟁으로 살며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 3·4대까지 벌을 주겠다고 하고 죄지은 소돔·고모라 지방을 유황불로 태우는 작태보다 더 가혹한 것이다.

회교의 『코란』 經에 보면

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의 옷(火衣)을 입히리라. 그들의 머리 위에 열탕을 퍼부어서 뱃속에 든 장부나 피부가 모두 녹아 없어지도록 한 후에 철퇴를 치리라. 괴롭다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다시 잡아서 거기 돌려 보낼 것이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너희들 화염의 가혹함을 맛보아라'고 하리라.²⁵⁾

선(善)의 보응은 ... 솟아 오르는 두줄기 샘물에 ... 온갖 실과, 종려, 석류 ... 그런 것의 중앙에 가장 착하고 가장 아름다운 처녀가 있는 데 ...

24) 이스라엘 마랍민족의 시조

유대족의 계보는 아브라함→이삭→야곱……예수

아랍족의 계보는 아브라함→이스마엘……무하마드

25) 『코란』, 수라

그 처녀는 어떤 사람이나 신령도 더럽히지 않은 몸 ... 이불과 담요에 싸여 ... 위력과 영광이 있는 그대의 이름에 복이 있으리라²⁶⁾

이렇게 불신자에게 가혹한 벌을 주는 반면 착한 일 한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처녀를 상으로 주는 것이 알라신이다. 또한 여성이 남아도는 중동의 실정을 생각해서 일반 국민은 아내가 넷, 지도자 랍비는 아홉을 지녀야만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은 그쪽 사정에 따른 조치일 뿐이나 기독교의 一夫一妻와는 정반대가 된다.

(7)希臘(Grecia)의 神觀

희랍은 협소한 반도국가로서 원주민들 사이에 전래한 많은 신이 있었는데 후에 침략자들이 점거해 살면서 함께 들어온 신들과 합류하게 된 관계로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신화라고 하면 희랍을 먼저 생각하게 되리만큼 신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우리가 희랍신화를 말하면 먼저 최고 신으로 제우스(Zeus)신을 말하는데 알고보면 상고에 있던 여신숭배, 모성중심의 사상이 있어서 제우스의 경우는 그 모친 레아(Rhea)²⁷⁾가 먼저 숭앙을 받고 있었다. 또 여신은 레아 밖에도 헤라, 오케아노스, 테아, 테시스 등 다수가 있었으며 이 여신들과 상대되는 남자신도 있었는데 남자신 제라는 바로 남근(男根)을 뜻하며 종족의 생식력을 담당했던 신이다.

군신(軍神) 아테나, 미의 신 아프로디테, 태양신 헬리오스, 땅의 신 레 등 많은 신들이 인간처럼 생활하여 연애하며 질투하고 싸우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우스의 주처(主處)가 올림푸스(Olympus)산이라고 모두는 알고 있지만 이 올림푸스가 전국에 20개소 이상이 있으니 그만큼 신과 신화가 풍성할 수밖에 없었다.

(8) 로마(Roma)의 神觀

로마라고 하면 우리는 유럽 전역에 세력을 떨치던 대제국을 연상하는 데

26) 『코란』, 55

27) 희랍·로마의 신화 <世界文學全集>, 新조社(日)

그것도 처음 시작 초창기는 라틴인들의 촌락 라툼의 한 집합단체였던 것이 차츰 도시국가형태(B.C.750)²⁸⁾가 되어 그 도시들이 연맹이 되었다.

그것이 에틀스칸이란 한 왕족(王族)의 침입으로 그 지배하에 6백년을 지내면서 그 왕족을 위한 군대조직이 발달했다. 그러나 그 군대가 집권왕족을 축출하고 공화제 국가를 이루었다가 후에 카르타고 전쟁을 치르고 제정(帝政)으로 변경되어 위세를 떨쳤다.

여신 쥬노(Juno)를 위시하여 하늘의 신 쥬피터(Jupiter)²⁹⁾, 미네르바(Minerba), 과실의 여신 세레스, 가축의 신 파레스, 이슬을 막는 신 로비가리아 등도 있고 또 히랍인들에게서 들어온 신화를 받아들여서 동화(同化)시키는 노력을 가했다. 그래서 주신(酒神) 바크스(Bachus)도 로마의 신이 되어 바크나리아란 술의 축제를 거행하기까지에 이르렀다.

3. 神明思想과 靈魂思想

동·서양 각 지역 각 민족의 신과 그에 따른 신관의 개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세계 각국 각 민족의 생김 생김이 다르고 추리력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관점이 같은 부분과 같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을 넉넉히 감지할 수 있다.

그 중요한 것이 동양의 신명관은 인간에게는 원래 신이 내재(內在)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의례 신이 된다는 사상, 이것은 한국, 중국, 일본에 공통된 사상이다.

다만 인도인만은 윤회전생(輪廻轉生)설을 믿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지 않을뿐더러 인도·유럽 어족(語族) 문화국가로서 서방에 문화를 보급시켜 줬기 때문에 외려 서방 문화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서구인에게는 인신(人神) 곧 사람과 같은 신이 있었어도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생전에서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인간은 신의 앞에

28) 前掲, <世界百科大辭典>

29) 前掲, <世界文學全集>

서 그 영혼이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되어 있는 기독교 사상이 그 대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는 이집트의 원시사상에서 왕은 모든 신이나 인간을 잡아 먹고 그 기운으로 왕의 정치를 집행한다는 사상 같은 것, 또 로마인들의 황제가 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것은 인간이 신을 위해서 생존하고 있다는 사상을 초월해서 인간이 산채로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과 인간 가운데도 왕은 신조차 죽일 수가 있다고 하는 절대 왕권의 주장이었다고 볼 것이다.

이것은 동양에서도 중국의 황제를 상제라 부르기도 하고 천자라고 한 것은 마치 예수가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한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일본의 천황이 2차대전 때 살아있는 신 [現人神] 이라고 했던 것은 로마제국의 황제를 신이라고 하던 것과 궤(軌)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서 틀림없는 일이다.

이제 이 장에 결론적으로 한 말을 붙이자면 동양의 종교사상은 인간이 곧 신이라든지 또는 근본적으로 신성(神性)이 있어서 사후에는 모두가 신이 되어 그 신들의 세계에서도 상제신을 모시고 인간사회처럼 생활한다는 것이 대종(大宗)이 된다 할 것이다.

반면 서구의 그것은 인간은 죽어서 영혼이 저승에 가서 선악에 따라 천당엘 가든지 지옥에 가는데 저승에서도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 뿐이라는 것이 대종이 되는 사상이라 할 것이다.

IV. 大巡思想의 神明觀

1. 神明의 概念

위의 제1장에서 신명의 어의(語義)를 설명하는 중에 한국적 신명 또는 신의 관념적 개념을 논하였으므로 이 장에서는 다만 대순사상을 위주로 전개해 보려 하는 것이다.

먼저 전경(典經)에 나와 있는 상제의 교법 법언을 경청한다.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느니라³⁰⁾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 속에 드나들게 하여 다 고쳐 쓰리라³¹⁾

증산은 종교적으로도 위대한 대성이었지만 그는 신 가운데도 상제라는 자각으로 행동한 聖者요 나아가서는 그 자신이 바로 상제(上帝)였다.

그는 자신의 속에 있는 상제로서의 신관만 확립했던 것이 아니라, 천지에 미만(彌漫)한 신명들을 보고 또 그들을 마음대로 사역할 수 있는 권능을 지녔었다.

풀잎 하나, 꽃 잎파리 하나에도 있는 신, 그 신명 그것은 우주의 대생명이었으니 그 신명이 떠나면 그것은 살 수 없어 말라 죽는다는 것을 교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무생물인 흙바른 벽, 말하자면 어느 길모퉁이의 돌담하나라도 신이 옮겨져 신명이 나가면 무너진다고 가르쳤다.

이 엄청난 신명관을 우리는 배워서 아는 동시에 이것이 오늘의 한국 건설의 기본 에너지며 우주 삼계를 구성하고 있는 근본이념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나 동물, 나아가서는 모든 생물, 무생물이 그 자체에 깃들어 있는 신이 없으면 말한마디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을 뿐더러 존재 능력이 없는 인형만도 못한 것이 될 뿐이기에서다.

30) 『전경』, 교법, 3장

31) 『전경』, 교법, 3장

때문에 증산상제는 후천세계 선경화의 삼계공사의 서곡으로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치는 도수조절과 함께 인간도 고친다고 선언하였다.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 속에 드나들게 하여 다시 고쳐쓰리라’고 하는 교시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마음에 드나들게 하는 신명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자체의 신명이 아니고 상제의 운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객체적 신명인 것 같은 의문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시천주(侍天主) 사상으로 해석하면 하늘을 모셔서 사람이 곧 하늘이 되는 [人乃天] 것 처럼 상제의 공사로서 출입하는 신명이란 곧 인간 스스로에게 있는 신명이 출입한다는 논리도 성립되는 것이다.

이것은 서구사람들의 신명관으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하겠지만 우리 동양인, 더욱이 한국인으로서의 아무런 의문없이 수용되는 교의가 된다.

그것은 우리의 돌아가신 부조(父祖)들이 모두 신이고 일월성신(日月星辰)도 또 24절후도 그리고 사방사유(四方四維), 28성수(星宿) 모두가 신적 존재인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신이 아닐 수 없고 또 상제의 교법대로 풀 한포기, 담벼락 한자락에도 다 신이 깃든 동양의 예지 한국의 종교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유계(幽界)에 있는 신들 가운데는 착한 신도 있고 악한 신도 있으며 고귀하고 존엄한 신도 있고 거지 같은 아포신(餓拳神)이 있으니 흔히 결신(乞神)이라고 부르는 천한 신이다.

위에서 서구인의 신관념 내지 신관을 말했지만 그들의 차원 낮은 종교지식으로는 동양 그 가운데도 한국, 또 그 가운데도 대순사상의 신관 곧 신명관을 이해하기는 난해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종교사상으로는 자기의 조상신조차를 하느님 앞에 우상이요 마귀라고 해서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편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신종교 ‘세이초 노이에(生長之家)’³²⁾를 창도(創道)한 교조 타니구찌 마사하루(谷口雅春)씨는 ‘사람은 신의 아들이다’한 것을 교시(敎是)로 내걸고

32) 生長之家. 일본서 40년대에 생긴 신흥종교였으나 지금은 신종교로서 인정받는다. 여기서 갈려 나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회’라는 종교도 교세가 상당하다.

있었다. 그러나 그를 직접 만나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신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일본이 2차대전 중이고 또 천황을 신이라고 하던 때라서 신의 아들이라고 했지요’ 하더라는 것이다.

어떤 종교의 교의도 절대적인 것은 있을 수 없고 그 지역 그 시대의 사회 형태, 문화현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튼 동양사상과 한국사상 가운데서도 가장 문화의 진액을 흡수한 대순사상의 신명관은 세계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아닌가 한다.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천지에 미만한 것이 신명들인데 그 신명은 과거에 곧 살아있던 사람의 신이요, 현재 살아있는 사람도 신성을 지닌 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은 죽은 사람이요, 사람은 살아있는 신이라 할 수 있다.

2. 神明의 類型

전경(典經)에 나타나 있는 신명의 이름을 유형별로 간추려 뽑아본다.

(1) 신(神)류

- | | | |
|----------|----------|----------|
| · 무극신 | · 황극신 | · 천자신 |
| · 천신 | · 천상신 | · 중천신 |
| · 지신 | · 지하신 | · 황천신 |
| · 지방신 | · 문명신 | · 도통신 |
| · 문신 | · 무신 | · 장상신 |
| · 보호신 | · 보은신 | · 수호신 |
| · 봉명신 | · 성령신 | · 통정신 |
| · 상계신 | · 중계신 | · 하계신 |
| · 백복신 | · 육정신 | · 서신(西神) |
| · 원신(元神) | · 성신(聖神) | · 삼신 |

- 사신(死神) · 만사신 · 압사신
- 원신 · 역신 · 36만신 · 사신
- 적신 · 무서신 · 아표신
- 예괘신 · 예고신
- 천하음양신 · 천하상하신 · 천하자기신 · 천하시비신 등

(2) 신명(神明)류

- 도술신명
- 서양신명 · 부안신명 등

(3) 신장(神將)류

- 5방(동서남북 중앙) 신장
- 28(28성수)장
- 8위(4방 4유) 제장
- 48장

(4) 왕류

- 조왕 · 해왕

(5) 사(師)류

- 우사

(6) 귀류

- 사귀

이상이 전경에 나와있는 신명류의 명호의 대강인 바 이 소개된 것 외에 우주에 가득차 있는 것이 신들이라고 할 것이다.

3. 신명의 주처(住處)

우주를 천·지·인三界로 구분하면 이 신명들이 삼계 전체를 자유로이 유행할 수 있다고 보아도 그들의 본거지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신의 이름이 천상신도 있고 중천신도 있고 황천신도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1) 天界에 있는 神明

천신, 무극신, 천상신, 상계신을 위시하여 신의 대다수가 천계를 주거처로 정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이 지니는 좁은 생각의 추리일 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地界에 있는 신들

지계를 구별하여 제신의 주처를 결정하는 것이 역시 어려운 일이지만 그 신의 성격으로 보아 지계의 신, 지신, 지하신, 황천신 등이 확실한 지계의 신이 될 것이며 그밖에도 지방신 하계신 등도 지계에 속하는 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人界의 신

우주의 삼계를 나누어 지계와 인계를 분명하게 획을 긋지 못하는 데 신들을 구별하여도 역시 확연하게 구별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다만 문명신, 사신, 압사신, 천하자기신, 천하시비신, 또 척신, 아표신 같은 것은 하늘에 있을 수 없는 성격의 신이니까 지계보다는 인계에서 작용하는 신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왜 이렇게 삼계로 나누어서 생각하느냐 하면 이 신명들이 인간의 상상과 추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대부분은 인간이 사후에 신이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이다.

4. 신명의 직능

이렇게 많은 신명들이 삼계에 가득하게 있으면서 무슨 어떤 직책을 맡아 있으며 그 능력은 어느만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직능의 예를 『전경』을 통해 알아본다.

상제께서 … “황천신이 이르니 황건역사의 수대를 불사르리라”³³⁾

일본사람이 조선에 있는 만고 역신을 거느리고 역사를 하느니라³⁴⁾

이제 혼란한 세상을 바꾸려면 황극신을 옮겨와야 하리라³⁵⁾

내가 천지공사를 행하면서부터 일체의 아표신을 천상으로 몰아 올렸으

니 이후에는 백성이 기근으로 죽는 일은 없으리라³⁶⁾

몇가지 예를 들어 본 것 뿐이지만 여기에서 보는 서너가지 사실로서도 신명들이 맡아 있는 임무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황천신은 아마 지하의 지옥에서 불을 맡아 있는 것 같으니 황건 역사의 수숫대를 모두 불사르겠다고 한 것이다.

역신의 경우 반역을 꾀하든지 사리에 거슬리는 일을 할 때에는 이 신의 작용이 필요한 것 같으니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때에 원용한 것이라고 본다.

혼란한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는 황극신을 불러와야하고 기근으로 고생하는 백성을 구하자면 아표신을 몰아 쫓아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 역시 신명들은 훌륭한 이들이 더 많다고 할 것이다.

33) 『전경』, 공사, 3장

34) 앞의 책, 공사, 3장

35) 앞의 책, 공사, 3장

36) 앞의 책, 권지, 1장

V. 결어

본고의 제1편은 양위상제를 제외한 일반 신명론으로 세계 각민족의 신명 개념을 대비해서 가장 합리화한 신관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한민족이고 그 가운데도 대순사상이 하나의 표본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것은 제2편의 상제론과 합해서 대순사상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신관에 대한 명제인 것은 다시 말할 것 조차 없다.

본고가 여기에 기술한 한 장이나 또 한 절로도 하나의 논문이 될 수 있는 것을 2.30장의 지면에 수용하게 된 것이 개관이 되어 버린 嫌이 없잖아 있는 것을 필자 자신이 잘 알고 있지만 신명론의 기초작업적인 의의는 지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세계화 국제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 신앙이나 자기의식의 자기 만족적인 것으로 유유낙낙할 수는 없다.

이것은 개인의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지만 사상 그 가운데도 종교사상인 대순사상과 같은 우수한 사상을 세계에 흥포 유출하지 않아서는 안되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지금은 20세기가 종언을 고하고 21세기를 맞으려 하는 때, 전세계의 지구인들은 황금만능과 물질문명의 현실적 자금 속에서 그림자를 잃은 소년처럼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

세계를 지도할 아무런 사상이 없는 세기의 공백기에 대순사상이 하나의 횃불이 되어 불타 올라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대순사상의 근간이 되는 신관의 확고한 정립이 소용된다 할 것이니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신개념 더욱이 대순사상의 그것이 고차원적인 동시에 또 인간적이라는 것이니 새로운 세기에 절대 필요한 사상이다. 어떤 신이 하늘 위에 앉아서 우주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굴리고 있고 또 인간의 사생화복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서구적 저차원의 신관에 물든 한국 사람의 가련한 상태를 시정하는 데도 대순사상보다 더 우수한 것이 없다.

둘째는 대순사상의 독특한 주신, 한세기전 한국 땅에 탄생했던 강증산과

조정산을 人卽神의 기초교의에서 신으로 봉대(奉戴)하는 것은 인종인이 신
증신이라는 큰 진리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굳이 인내천 사상을 빌려올 것도 없이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신성을
최대로 개발하여 전한국의 인간, 또 나아가서 전세계의 인류가 함께 신으로
서 세계가 신국화할 진정한 희망과 기쁨을 맛보게해야 할 것이다.

일반동물처럼 생존만을 위하는 인간이 되지 않고 정말 신답게 신으로 생
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명론을 서술하고 고두(叩頭) 합
장한다.

【참고문헌】

- | | | | |
|------------------|------------|------------|------|
| 대순진리회 교무부, | 『전경』 | 대순진리회 출판부, | 1974 |
| 양주동, | 『最新國語大辭典』 | 民衆文化史 | |
| | 『中村元新佛教辭典』 | | |
| | 『世界大百科辭典』 | 東亞出版社 | |
| | 『힌두교경전』 | 우파니샤드 | |
| George A Birton, | 『世界宗教史』 | 丙文出版社(日) | |
| | 『宗教學辭典』 | 東京大學出版部 | |
| | 『신약성서』 | | |
| | 『구약성서』 | | |
| | 『코란』 | | |